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제 41 - 6 호

2024년 2월 11일

- 설 연휴기간에 오고가는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멋쟁이학교 졸업여행을 12일-16일 홍콩-마카오로 다녀옵니다.
- 14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일(18일)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 다음 주일(18일) 오전 주일공동예배는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다음 주일(18일) 오후 3시에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있습니다.
- 성서일기가 아가서(13일)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 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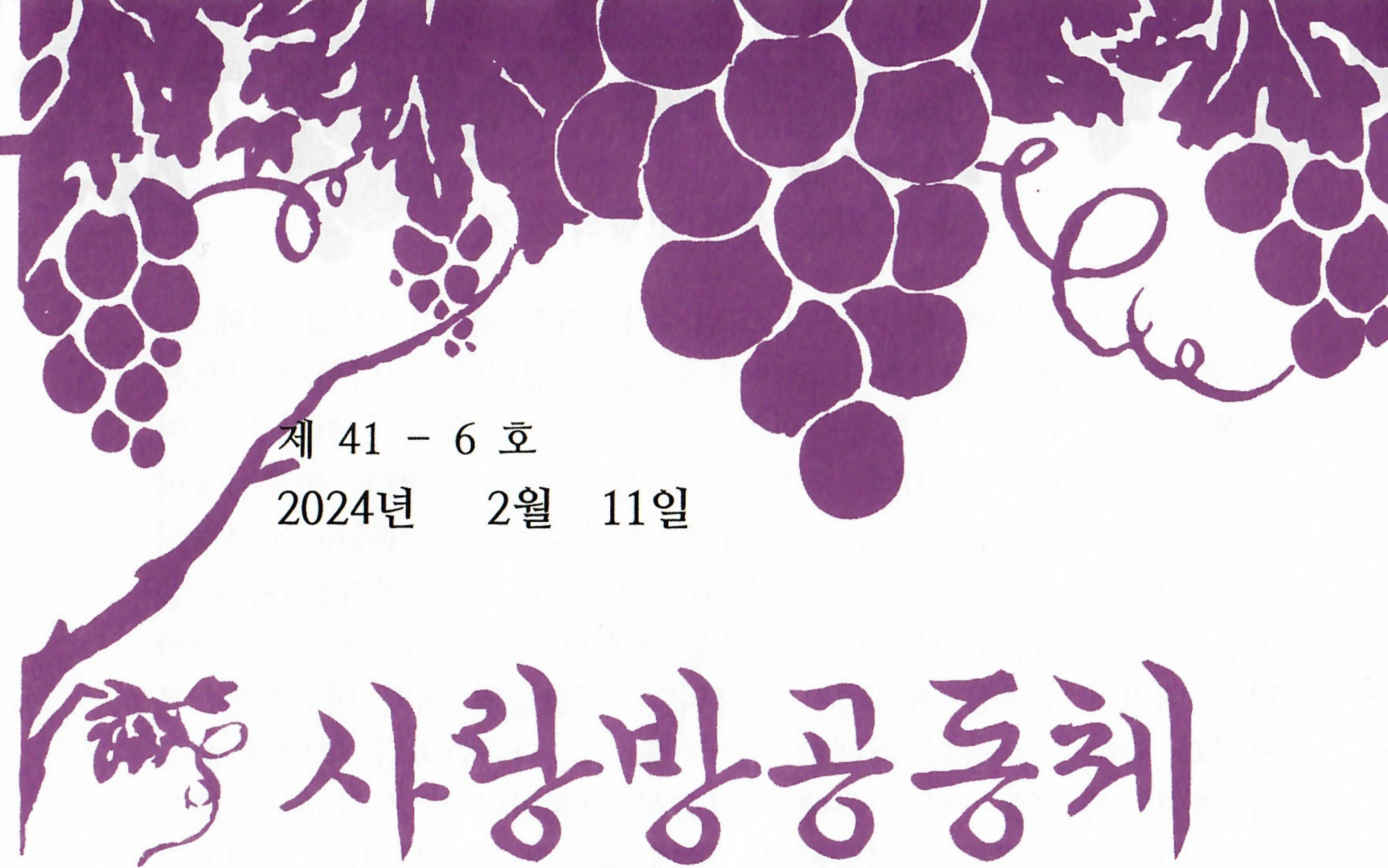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 강춘자 권사 ( 범사에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다시 가고 싶은 고향의 풍경

큰 방, 또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가장 큰 어르신을 앞에 두고 손자 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줄로 섭니다. 어디선가 나오는 호령에 따라 아이부터 청년까지의 낮은 향렬들이 제각기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립니다. 고개를 숙여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웃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던져주시는 덕담에 웃음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예의를 차릴 줄 아는 사람은 겸양을 내비치면서 복을 빌지만, 어린 아이는 대뜸 손바닥을 내밀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세배 이후에는, 부모님과 자녀간 모종의 거래가 오가기도 합니다. 한바탕 덕담과 충고와 추억담이 휘몰아친 다음에는 설음식 차례입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기름진 음식들을 열심히 입 안에 옮기기 바빠집니다. 꾸역꾸역 상을 가득채운 음식들에 겸손히 부족함을 말하는 분과, 맛과 양의 충만함을 말하며 넉살좋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 그릇을 먹던 세 그릇을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들려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벌써 그만 먹게? 좀 더 먹어라.”

민족의 명절, 설날의 한 풍경입니다. 흔히 기대되는 설날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따뜻한 덕담과 넉넉한 인심, 오가는 선물과 즐거운 추억담, 앞으로의 계획과 서로의 형편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손길까지... 그야말로 친족관계의 긍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장임에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은 대단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으로 명절 기간을 뽑고 있습니다. 의가 상하는 말과 행동, 염려될 만큼의 많은 지출, 강도 높은 노동과 이동에 대한 부담감, 각자의 처지가 비교되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명절이라는 기간에 얽혀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싫어서 아예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만남을 향한 많은 발걸음이 무색해지는, 안타깝고 슬픈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조차 부러워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 없거나 돌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이나 고향이 이북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보이는 곳에 모여서 단체로 차례를 지내거나, 그들만의 모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이북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떨어질 길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보내는 명절은, 경험한 적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렇듯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에는 자신의 근본을 찾는 본능, 변하지 않는 고유함, 익숙하고 안락함, 받아들여지는 경험, 여러 가지 추억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태어난 장소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년 고향이나 친족을 찾아가는 데는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방교회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로 창립되어 오랜 시간동안 지내왔습니다. 당연히 경험하고 거쳐가신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삶으로서 다녀간 곳에는 흔적이, 한 지체로서 살아간 몸으로는 추억과 경험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만나뵈는 분들 중에는 몇 년이 지나 훌쩍 깜짝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꾸준히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참 반갑고, 이어지는 인연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꼭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그저 잠시라도 돌아가 쉽이 되고,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형편을 헤아려 사랑받는 고향처럼- 사랑방공동체가 그렇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 된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면서, 모든 사랑방공동체의 구성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고향이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 시편 133편 3b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46 264 / 440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전도서 8장

제목 : 역설의 지혜

### 1. 내용: 지혜는 역설적이다. (What)

<문단구분>

1~6절 불편한 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7~10절 일반교훈

11~12절 지혜의 유익

13~18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19~24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 2. 의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Why)

1)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2) 지혜로운 삶에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3. 적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How)

1) 눈과 귀와 마음이 잘 다듬어져서,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자.

2)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는 나라이다.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자.

3)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

## 설날입니다

하나님. 꿈같은 시간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0년, 어진이형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 손에 꼽히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넘어 또다시 함께 살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객관적으로 마주하고 과거를 인정하는 모습을 저는 닦고 싶었습니다. 2011년, 어설픈 신학생으로 사랑방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린 예흠이네 가족과 한 집에서 1주일을 지냈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에 자그마한 마음조각을 이곳에 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2019년 1월 공동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만 5년간 멧쟁이학교 교사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내환과 코로나의 외환이 19년도 후반기와 20-22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23년 상처는 여전하지만 천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에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기간에도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을 챙기려고 부단히 노력하셨고, 자신이 가장 슬프면서도 애써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제 안에 사랑방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사랑했던 멧쟁이 친구들도 존경하는 사랑방의 어르신들도 이제는 눈 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멧쟁이 졸업생들은 이곳을 집이라고 고향이라고 칭합니다. 비록 멧쟁이는 아니었으나 저도 이곳을 고향으로 칭해도 되겠는가 감히 여쭙니다.

내일이 마지막일 것처럼 사랑하고, 평생을 있을 것처럼 고민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수도 많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걱정되실 때도, 불편하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햇병아리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마음을 두고 왔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고향같다며 웃어도 될지 여쭙니다.

한조각 남기고 온 마음이 이토록 커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련합니다. 5년간 사랑방 가족분들이 제게 쏟으셨던 그 사랑을 멧쟁이들에게 다 쏟아내지 못하고 너무 많이 제 마음에 남겼나 봅니다.

그러니 부디保重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3 : 16  
2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1서 1 : 9  
56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시 편 133 : 1-3 설교자  
304 디아코니아사랑방  
“ 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태일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2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승호 이어람 / 봉헌위원 : 정혜라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영생의 복을 간구합니다.  
저희에게는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  
분됩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1>  
그 아름다움을 기쁨 부음의 거룩함과 헤르몬의 이슬로 인한 풍요함  
에 비유하며,<2-3a>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과 영생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중심은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시편의 주제는 ‘복있는 사람’이며,  
<시1:1> 133편은 시편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곧 영생이  
다” 했습니다.<3b> 예수님께서 “영생은 ...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는데,<요17:3> ‘아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  
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복은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설, 관계의 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  
려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에 힘쓰십시오. 관계를 위해  
서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어머니, 사랑, 우정)들을 사용하십시오.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  
오.<마5:44>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윤희중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긴 방학이 끝나고 꾸러기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꾸러기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몸이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교에 오고 싶다는 의지로 꾸러기학교 문을 활짝 열고 등교를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만난 친구들은 키가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아마 방학 동안 밥도 잘 먹고 잠 푹 잔 거 같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방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진을 뽑아오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꾸러기 친구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사진도 멋지게 꾸미고, 그림도 멋지게 그려서 다같이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부터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며 행복한 방학을 모두 잘 보내고 왔다고 합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설날 동화를 듣고, 설날이 어떤 날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꾸러기들에게 설날이 어떤 날인지 물어보니 “떡국 먹는 날”, “새뱃돈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의 의미와 설날에 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고, 새배도 연습했습니다. 새배 멋지게 해서 바라는 새뱃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ㅎㅎ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12월 13일부터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은 우선 부모님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학년말 면담 시간을 가졌고, 2023년 한 해의 소감을 나누는 교사 피드백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본격적으로 졸업여행 준비가 틈틈이 이루어졌고, 17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과 홍콩, 마카오로 3명의 졸업생과 **배움과 가르침**

5명의 교사가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에는 늘 예기치 못했던 재미와 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지만 8명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즐거움을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우, 민상이, 시현이의 마음 속에 이번 졸업여행이 ‘행복’이라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번 주부터는 굵직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 금요일에 있을 2월 등교일과 토요일 사은회와 새학년 학부모님 전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졸업식까지 쭉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지금쯤 ‘아이쿠나’, 또는 ‘앗싸’를 연발하고 있겠네요. 발목을 붙잡는 방학숙제와 습관이 돼버린 늦잠이 질척대겠지만, 떨치고 15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모래사장 앞마당에서 동그란 원을 만들고 모두 함께 서게 될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모두 모두 보고 싶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겨울눈이 점차 녹아들어가는 입춘입니다. 그에 따라 멋쟁이학교도 봄학기를 아쉬움과 보람속에서 종강하였습니다. 봄학기는 다음 학기에 기다리는 과정을 대비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열심히 채우는 기간입니다. 학업 공부를 열심히 이어가면서, 간식과 함께 아시안컵 축구 응원도 하는 등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쌓았답니다. 그 와중에 6학년은 각자만의 자리에서 졸업과 졸업여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는 그런 6학년들을 위해 정성껏 졸업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멋쟁이들이 6년간을 잘 정리하면서도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문단 없는 글

24보다 23이 더 익숙한데, 벌써 1월이 지났다.

1월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더 좋아하며, 새롭게 좋아하며, 그러다 며칠은 좋아했던 것을, 그때의 마음을 그리워하며 지났다. 방학엔 거의 본가에 있었다. 학기 중 주말에도 파주에 자주 가곤 하는데, 갈 때마다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먹고 싶었던 음식을 준비해둔 엄마를 보며 사랑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낀다. 엄마. 엄마는, 가족은 뭘까? 20대 후반, 나는 엄마를 부르고, 누군가는 엄마라고 불린다. 쌍둥이를 낳은 대학 동기 언니와 최근에 연락을 했다. 언니, 애기들 너무 귀엽다. 어때? 새로운 세상이야? 한참 표현을 고르던 언니는 이상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항상과 같을 수 없겠지. 쌍둥이들의 아빠인 동기 오빠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오빠, 아빠 됐네 축하해. 오빠는 아저씨처럼 웃더니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대답했다. 축하 인사에 각오로 답하는 오빠가 어른 같아서 조금 안쓰러웠다. 근데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부러웠다. 작년에 나는 성장하고 싶었다. 매년, 매 학기, 매달, 매일 성장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일은 기쁘고 벅차다. 그리고 가끔 괴롭고 외롭다.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마음이 어지러웠다. 누구 앞에 선 울기도 했다. 며칠 전에 그 누구는 해결을 물었고, 나는 그렇게 어떻게 됐더라. 남 일처럼 대답했다. 나는 내가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내 감정을 모를 때,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남 얘기하듯 답한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마 그럴걸? 그렇게 어떻게 됐더라. 올해는 내가 내 답을 해야지. 그래, 올해를 살고 있다. 해가 바뀐 게 실감이 나지 않아 등산 약속을 잡았다. 아직 작년 기도를 한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비대한 자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함을 여전히 구한다. 어떤 이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듣는 건 나 자신이라고 했다. 정월 초하루에 내 귀에 들린 것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바라는 내 목소리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청년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430장, 93장

성경 : 히브리서 6장 9절-20절

말씀 : 소망을 위하여 나온 사람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북한의 실상>  
통일부에서 처음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빈부격차, 배급 붕괴, 의료 낙후, 불법 행위들의 횡행이 나타납니다. 불안정한 내부 분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대남 도발 등 강경책을 연달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평화의 물결이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사순절을 준비하며>  
이 땅의 교회와 신앙공동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이어가는 새해를 가져가도록  
믿음의 리더들을 위하여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 2)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 3) 꾸러기의 시작을 위해
  - 4) 설연휴 오가는 가정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모처럼 꾸러기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동체에 가득 울린 한주였습니다. 일부러 자연예배당을 기웃거리며 꾸러기들의 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봄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기쁜 일입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설 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친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반갑게 만난 친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오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식구들이 또 다른 가족처럼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